

정율성(鄭律成)의 동요 작품에 관한 연구*

-가창방법을 중심으로-

김 남 경**

정율성(1914~1976)은 대한민국 광주 출신으로 중국 3대 음악가 중 한 사람으로서 한국에서 유소년 시절을 보낸 후 항일운동을 위해 1933년 중국으로 건너갔다. 이후 360여곡의 작품을 남겼으며, 13억 중국인에게 음악의 대부로 불리고 있다. 본 논문은 정율성의 동요작품 분석을 통하여 그의 동요 교수 학습 자료 개발을 목적으로 하였다. 정율성 작품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첫째, 그의 일생을 살펴보고, 시대적 배경을 바탕으로 창작품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둘째, 동요를 포함한 창작품들을 정리하였다. 셋째, 정율성의 동요 중에서 가장 많이 불려지는 여섯 곡을 선정하여 가사원문을 병음(拼音)과 함께 해석 했으며, 직접 사보한 한국어 악보에 형식, 작곡배경, 분위기, 중요한 주법, 가사수정 및 악상과 가창방법 등을 제시했다.

※ 주제어: 정율성, 동요, 작곡배경, 가창방법

차 례

I. 서 론

1. 연구목적
2. 연구범위와 방법

II. 본론

1. 鄭律成의 생애
2. 鄭律成 음악의 배경
3. 鄭律成 음악의 특징
4. 鄭律成의 대표적인 동요곡 분석과 가창방법 제시

III. 결론 및 제언

* 본 논문은 2016년도 송원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 송원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I. 서론

1. 연구목적

1) 시대적 연구목적

1990년 북경 아시안게임 개막식 연주 첫 곡, 2013년 6월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사열식에서 울려 퍼진 곡<중국인민해방군가(中國人民解放軍歌)>가 정율성(鄭律成, 1914~1976)의 곡이었다는 사실은 그의 음악적 위상을 잘 대변하고 있다.

특히 중국 인민 80%이상이 그의 곡을 노래 할 수 있다는 사실과 중국의 아리랑 이라고 할 수 있는 <연안송> 등을 작곡한 그가 바로 1914년 대한민국 광주(光州) 출신으로, 19세에 항일운동을 위해 중국으로 건너가 음악활동을 통해 역사적으로 큰 업적을 남긴 것은 매우 자랑스러운 일이다. 광주광역시의 특화된 음악 축제라고 할 수 있는 [광주정율성국제음악제(光州鄭律成國際音樂祭)]¹⁾를 통한 그의 부활은 음악이라는 세계 공통언어를 바탕으로 그가 생전에 갈망하였던 동북아의 평화에 초석이 되고 있으며, 점차 우리의 귀에 익숙해지고 많은 시민에게 음악적 향수를 가져다주고 있다. 현재의 <중국 국가>를 작곡했으며 37편의 곡을 쓰고 23세에 요절한 섭이(聶耳, 1912~1935)(광주문화재단, 2012, p. 99)와 중국 불후의 대서사시 <황하대합창>을 비롯하여 250편의 곡을 창작한 선성해(冼星海, 1905~1945)(광주문화재단, 2012, p. 99)와 함께 중국의 3대 음악가 중 한사람으로서 조국의 독립과 중국의 항일운동을 위해서 예술혼을 불사른 음악가로 추앙 받고 있다.

그의 창작곡 중에는 지금까지 중국에서 아동가곡(兒童歌曲)으로 널리 애창되어 오던 <평화의 비둘기(和平鴿)> 등이 포함된 40여 편의 동요가 있는데, 대부분의 동요가 창작된 시기는 조국의 한반도가 전쟁 중이던 1951년부터 1966년 문화대혁명(文化大革命)이 시작되기 전까지 이다. 1951년 조선에서 중국으로 들어와 북경인민예술극장에 근무하면서부터 동유럽 여러 나라를 방문하여 견문을 넓히고, 중국의 변방을 다니며 생활체험을 통해 창작을 활발하게 하던 시기에 동요를 많이 쓰게 된다.

1) [광주정율성국제음악제]: 2005년부터 정율성의 고향인 광주광역시에서 그를 기념하는 음악제가 시작되어 2015년, 11회를 맞았다. 그의 대표곡을 연주하고 그의 일생과 작품에 대한 세미나를 열었으며 중국과 교류음악행사를 매년 가지고 있는 행사로 주최자는 광주광역시이다.

특히 조국의 분단에 대한 심적 고통을 겪은 후부터 가사에 ‘평화’, ‘화해’, ‘행복’, ‘우의’ 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하였으며, 동요마다 이러한 평화를 갈망하는 색채가 들어있다(정설송, 1992, ①, p. 228). 2005년부터 한중(韓中) 양국에서 개최되는 정율성기념사업을 계기로 우리나라에도 그의 동요곡이 보급되기 시작하였고, 2014년부터는 광주문화방송국에서 개최한 [정율성동요합창경연대회(鄭律成童謠合唱競演大會)]²⁾ 를 계기로 더욱 많이 불려지고 있다.

하지만 광주지역 외에서는 그의 작품이 연주되는 경우가 드물며, 보급된 작품집이 부족한 것은 애석한 일이다. 특히 그의 작품 중에서 동요곡은 불러볼수록 순수하고, 서정성이 깊으며 독창적인 매력을 느낄 수 있다. 예술성이 높은 그의 동요곡이 널리 보급되고 정확하게 불려지기 위해서는 가창방법이 구체적으로 연구된 자료가 제시되어야 함에 이 논문을 쓰게 되었다.

2) 학문적 연구목적

본 연구의 학문적 연구목적은 작품의 탄생배경과 그의 개성 있는 작곡기법, 선율선법의 특징, 작품형식의 특징, 원문의 이해 등을 분석하는 것이며, 그의 동요 작품 중에서 중국과 한국에서 가장 많이 불리며 체제이념이나 계몽의 성격이 아닌 순수성이 강한 동요 여섯 곡을 발췌하여 곡에 나타난 작곡자의 정서와 창작기법을 깊이 있게 해석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과정을 바탕으로 그의 동요를 연주하는 아동들이 적절한 표현을 할 수 있도록 곡의 해설과 악상이 섬세하게 첨부된 우리말 악보를 연구물로 제시하는 것이다.

2. 연구범위와 방법

1) 연구범위

정율성의 동요작품이 어떻게 탄생 되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먼저 그의 출생환경에서 부터 ‘문화대혁명’ 시절까지의 생애와 그의 음악의 시대적 배경, 이념적 배경, 정서적 배경 등을 알아보았으며, 그의 음악적 특징인 다양한 장르, 창작특징, 개성 있는 작곡기법, 선율선법의 특징, 작품 형식의 특징 등을

2) 정율성동요합창경연대회: 2014년부터 정율성의 고향인 광주광역시에서 MBC광주방송국이 주최하여 2015년까지 2회를 치렀다. 합창경연형태로 치러진 행사에 초등학교 합창단이 주로 참가 하였다.

살피고, 여섯 곡을 선정하여 원문을 변안한 우리말 악보에 가창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2) 연구방법

그의 작품들을 분석 한 후, 대표적인 동요 여섯 곡을 선정하여 원문을 바탕으로 시, 원문, 병음(拼音, 중국어 발음) 및 가사번역을 첨부하였다. 병음을 표기한 것은 중국과 공동으로 정율성의 기념행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음을 대비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원문 가사의 올바른 해석과 정확한 병음의 표기를 위해 1980년 중국 지린성(吉林省) 훈춘(琿春) 태생인 서월아(徐月娥)님의 감수를 받았다.

연구자 본인이 직접 악보를 현대화된 프로그램으로 기보하고 광주문화재단에서 지원하여 2015년에 발행한 [탄신100주년기념 정율성가곡집(鄭律成歌曲集)](광주문화재단, 2015, pp. 8-26)에서 발췌한 악보를 사용하여 그 곡에 담긴 내용을 살펴보고, 많은 경연대회와 연주에서 들은 경험과 필자의 직접 가창을 통해 깊이 있게 정리하여 한국어 가사로 된 반주붙임 곡의 나타냄말 부분에 형식, 배경, 기법, 분위기, 중요한 주법을 제시하였고, 가사표현 및 악상주의 내용 등의 가창방법을 악보 전체에 구체적으로 표시하여 그의 동요곡을 부르고자 하는 아동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했다.

3) 분석 기준

그의 작품을 깊이 있게 분석하고 효과적인 가창방법을 제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그의 동요작품에 대한 분석기준을 정하였다.

- ① 동요가 작곡된 시기와 시대적 배경
- ② 중국원문 가사의 뜻과 병음, 우리말 번역 가사의 적절성
- ③ 동요의 창작에 사용된 보편적인 작곡기법
- ④ 그의 동요에 나타난 악곡의 구성(Song form)
- ⑤ 그의 동요 창작기법 중 개성적이며 특화된 작곡기법
- ⑥ 악보의 원본에 나타나 있는 나타냄말과 악상기호
- ⑦ 효과적인 가창을 위한 악상 지키기와 중요한 주법
- ⑧ 제목과 가사에 나타난 이념과 정서감

II. 본 론

1. 정율성의 생애

1) 출생 환경

정율성은 1914년 8월 13일(음력 7월 7일), 조선 전라남도 광주에서 부친 정해업(鄭海業)의 막내로 출생했다. 본래 이름은 구모(龜模)로 시작하여 호적에는 정부은(鄭富恩)이었으며, 부친은 기독교인으로 애국주의 사상으로 충만 된 빈농이었고 1910년대 수피아여학교 교사생활을 했다. 어머니 최영온(崔永溫)은 광주 최초 세례교인이자 광주 최초 한국인 목사였던 최흥종(崔興琮)목사와 당시에 미국유학을 다녀와 제중병원장을 하였던 의사 최영욱(崔泳旭)을 동생으로 둔 명문의 규수였다. 정율성의 맏형 정효룡(鄭孝龍)과 둘째형 정충룡(鄭忠龍)은 조선독립혁명운동에 적극 참가하였고, 후에 중국에서 혁명운동에 참여했다. 셋째형 정의은(鄭義恩)은 장개석(蔣介石)이 이끄는 중국 국민당 정부 군사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남경(南京)에 항일독립운동에 동원될 인재를 양성할 목적으로 1932년 10월에 설립한 기관으로 교육기간이 6개월 이었던 ‘조선혁명군사정치간부학교(朝鮮革命軍司政治幹部學校)’(이중환, 2006, p. 49) 출신이다. 한 때 수피아여고 음악선생을 했던 누이 봉은(鳳恩)은 중국으로 건너가 항일운동의 무관이었던 박건웅(朴建雄)과 결혼했다. 율성은 어려서부터 외삼촌 최흥종의 집에 가서 축음기를 이용해 동서양의 명곡을 접하였고(정설송, 1992, ①, pp. 40-42), 일찍 사망한 두 형제를 제외한 다섯 형제의 학교 생활기록부(정율성선생기념사업회, 2008, pp. 56-64)에서 모두 창가(唱歌)의 과목성적이 다른 과목의 성적에 비해 월등한 것으로 보아 형제들 모두가 가창력이 우수했음을 알 수 있다(정율성선생기념사업회, 2008, pp. 56-64).

2) 유소년 시절

7세 이전은 양림동 앞 광주천(光州川)에서 물장구 치고 물고기 잡기를 즐겼으며, 친구들과 무지개를 잡으러 갔던 이야기 등이 본인의 추억담으로 전해진다(정설송, ①, 1992, p. 27). 8세이던 1922년 4월 1일 화순 ‘능주소학교’에 입학, 학적부에 6개 과목 중 창가(唱歌)과목이 제일 우수함을 볼 수 있고, 주소지는 능주면 석곡리였으며 ‘광주 전학’으로 퇴학 처리되었다. 전주의 신흥중학교 학적부에 의하면 입학 전 학력으로 ‘전남광주양림송일학교’로 기록되어 있다(정율성선생기념사업회, 2008, pp. 63-64).

3) 신흥(新興)중학교 시절

1919년 전주에서 3.1 운동을 주도했으며, 일제의 신사참배 거부로 폐교 될 만큼 항일의 전통이 살아있는 전주 ‘신흥중학교’에 15세 되던 1929년에 입학하여 기숙사 생활을 했다. 이 무렵 항일운동조직에서 활동을 시작 했으며, 선배들로부터 <인터내셔널가>, <라 마르세이유>, <적기가> 등을 배웠다(정설송, ①, 1992, p. 19). 학적부에 전 학력이 ‘전남광주양림송일학교’로 기록되어 있고, 주소는 ‘전남 광주군 효천면 월산리 734번지’, 세례 표시 란에는 세례를 받았다는 뜻의 ‘수세(受洗)’(정윤성선생기념사업회, 2008, p. 64)로 표시되어 있다. 당시 신흥중학교는 합창단과 밴드를 위시하여 교회의 음악활동과 전주시의 음악 활동에 크게 기여했으며, 율성은 이 기간에 노래를 잘 했던 학생으로 기억되고 있다. 이 시기에 율성은 악보와 악기, 만돌린을 배웠다. 신흥중학교의 분위기는 그가 후일에 독립운동을 위해 중국으로 건너가게 된 큰 요인이라 할 수 있다. 17세이던 1931년 11월에 갑작스러운 아버님의 작고로 신흥중학교 학업을 중단하고 광주 월산리에서 양림동으로 돌아와 생활한다.

4) 중국 남경(南京) 시절

19세이던 1933년 5월 8일, 조국을 되찾는 독립운동에 가담하기 위해서 ‘조선혁명군사정치간부학교’를 졸업하고 항일청년 모집활동을 하던 셋째형 의은(義恩)을 따라 만돌린이 든 가방을 들고 목포에서 헤이안 마루(平安丸)호를 타고 부산과 일본 나가사키를 거쳐 목포를 떠난 지 5일 만인 5월 13일 아침 무렵 중국 상해 포동항(浦東港)에 이르게 되었으며, 조선의 진보청년들과 함께 중국 남경에 있는 조선의열단에서 세운 ‘조선혁명군사정치간부학교’에 2기생으로 들어간다(정설송, 1992, ①, p. 52). 20세 되던 1934년에 ‘조선혁명군사정치간부학교’를 졸업한 후, 1919년 11월 만주 길림성(吉林省)에서 김원봉이 조직한 단체로 국내외에서 일어난 테러를 주동하여 일본 경찰들이 두려워하던 독립운동단체이며, 항일운동을 끌고 갈 핵심 무장세력 이었던 의열단(이종한, 2006, p. 47)에 남아 비밀항일사업을 했다. 동시에 그는 남경에서 피아노와 바이올린을 배웠으며 상해에 머물던 소련 레닌그라드음악원 출신인 크리노아(Krenowa) 교수에게 일주일에 한번 씩 성악 개인지도를 받았는데, 그로부터 성악가로의 대성을 위해서 이탈리아로 유학을 권유받았으나 유학경비 마련 문제와 조국독립운동에 대한 신념으로 유학을 가지 않았다. 21세 되던 1935년부터 1936년 동안은 경제적 곤란으로 성악을 계속 배우지

못하고 남경의 화로강에 돌아와 음악을 자습하게 된다. 남경에서 청년문예구국단체인 '5월문예사' 단체에 가입하여 진보적인 문화 활동에 종사하였고, '5월 문예사' 창립일에 대표 추취도(鄒趣濤)의 칠언시에 율성이 곡을 만들어 <5월의 노래> 라는 제목을 붙였다(정설송, 1992, ①, p. 57). 당시의 율성을 웅변가였으며 열정적인 활동가로 기억하는 이도 있다.

1936년 12월 12일 중국 현대사의 운명을 바꾼 사건이 일어나는데, 공산당과의 합작을 반대하던 국민당의 장개석을 그의 부하이던 장학량(張學良)이 급습하여 가두게 되고, 내전중지와 국공합작을 약속하고서 그해 12월 25일 풀려난 사건인 서안사변(西安事變)(한현목, 2006, p. 159)이 일어난 것이다. 이후 항일통일 전선에서 모택동(毛澤東)이 이끄는 중국공산군은 '팔로군'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게 되고 연안 근처의 태항산이 주둔지의 중심이 되는데, 율성은 이듬해 중일 전면전이 벌어지자 항일전사가 되기 위해 '팔로군'이 있는 연안으로 떠난다.

5) 중국 연안(延安) 시절

23세였던 1937년 7월, 프랑스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황하대합창>의 작곡가 섹星海(洗星海)를 남경(南京)에서 만나게 되었으며, 그의 권유를 받고 혁명적 음악 사업에 종사하려는 마음을 확고히 가졌다(정설송, 1992, ①, p. 87). 같은 해 7월 7일 밤, 루거우차오(蘆溝橋) 부근에서 중일 전쟁의 발단이 된 양국 군대의 충돌 사건이 벌어졌는데, 중국 국민당 군과 일본군이 루거우차오 다리를 사이에 두고 대치하고 있다가 중국군이 먼저 사격하였다 하여 일본군이 루거우차오를 점령하고 중국군은 퇴각하였으며, 그 후 중일 전쟁으로 발전하였던 '루거우차오사건(한국브리태니커 온라인, Marco Polo Bridge incident. 2015.11.05)'을 계기로 항일전쟁이 폭발하게 되자, 율성은 9월 초에 상해로 옮긴다.

이곳에서 그는 시민들에게 항일의식을 불러일으키는 공연을 하는 것과 더불어 전선을 방문하여 부상병들을 위로하고, 병사들의 항전의지를 고취시키며 봉사활동을 하는 애국단체인 '대공전영회극독자회(大公電影戲劇讀者會)(이종한, 2006, p. 95)'의 제5대 회장으로 음악활동에 참가하면서 항일전선사업을 한다. 이 때 그는 첫 작품들로 <유격전가>, <전투적녀성의 노래>를 창작했다. 9월 하순에 남경에 돌아왔다가 항일혁명에 직접 뛰어들기로 작정하고 바이올린과 만돌린, <세계명곡집>과 <서방가곡명곡단편>을 품에 안고서 남경을 떠난다.

10월에 연안에 도착하여 남경대학살을 피하게 되는데, 1937년 6월 중국 공산당 중앙 위원회가 연안에 세운 학교로, 후에 노신예술학원과 노동자학교를 확장하고

전쟁 시 청년훈련반 4학교와 연합하여 “화북연합대학”으로 발전한 ‘섬북공학(陝北公學)(이종환, 2006, p. 95)’에 들어가 학습했다. 그가 연안으로 간 것은 본격적인 항일전사적 삶의 시작이었고 인생의 전환기였다고 할 수 있다. 당시 항일의 본거지인 연안에서 중국의 역사적인 인물인 모택동(毛澤東), 주은래(周恩來, 총리), 주덕(朱德, 팔로군총사령관), 왕진(王震, 중국국가 부주석)등을 만나고, 특히 그의 인생의 동반자가 될 정설송(丁雪松, 1918-2011)을 만났으며, <연안송> 이라는 불후의 명곡을 작곡했다. 1938년 연안에서 ‘섬북공학(陝北公學)’을 졸업하고 3월에 창건된 ‘로신예술학원’ 음악학부에 들어간다. 봄에 시인 막야(莫耶)에게 가사를 부탁하여 <연안송>을 창작하고, 후에 소가극 <삼림에서>를 창작했다. 8월에는 ‘로신예술학원’을 졸업한 후 ‘항일군정대학’ 정치부에 음악지도자로 배치 받았다. 이 시기에는 불꽃같은 열정과 항일의식으로 군가를 많이 작곡하였는데 <10월 혁명행진곡>, <항전돌격운동가>를 창작했으며, 동요 <아동행진곡>을 창작하였다. 25세가 되던 1939년 1월 ‘항일군정대학’에서 중국공산당에 가입하였으며 <연수요>, <생산요>, <아랑에게> 등을 창작하고 <팔로군 군가>, <즐거운 팔로군>, <기병가>, <포병가>, <군민일가>, <팔로군과 신사군>, <자야초병송>, <팔로군 행진곡> 등의 여덟 곡으로 이루어진 <팔로군대합창>(정설송, 1992, ②, p. 79)의 창작을 끝냈다.

율성은 이 해에 예술인재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만든 ‘노신예술학원(http://korean3040.com/bbs/board.php?bo_table=0801&wr_id=228, 2015.11.05).’에서 성악 교원을 담임 한다. 아편전쟁의 시작으로 서방열강의 중국침략이 시작되던 1940년에는 대합창 <가람요>, <항일기병대>를 창작하고, 가곡 <벌목가>, <백탄대전행진곡> 등을 작곡했다. 연안의 중앙대강당에서 정율성이 노신예술학원합창단을 지휘한 [팔로군대합창음악회]에서 표창을 받는다. 1941년에는 연안에 세워진 중국 공산당의 간부 양성학교인 ‘항일군정대학’에서 여학생대 대장 출신이며, 훗날 중국인민공화국의 처음 여성 대사로 駐네델란드, 駐덴마크 대사 등의 고위직을 지낸 중국인 정설송과 노신예술학원에서 결혼한다.

1942년 5월, 연안에서 세 차례 열렸으며 중국의 궁극적인 해방을 위해 군사적인 승리도 중요 하지만 문예전선, 즉 문화가 뒷받침 되어야 함이 강조되었던 ‘연안문예좌담회(정설송, 1992, ①, p. 126)’에 참가한다. 8월에 연안을 떠나 산둥(山東) 동남부의 태항산(太行山)에 있는 팔로군총본부로 간다. 조선 혁명가들의 역량을 보존하기 위하여 항일운동의 총본부가 있었던 태항산(太行山)에 집결한 한국(韓國)의 독립운동가들이 정치조직과 군사조직을 결성하고, 한국독립운동에 필요한 군사 간부와 정치 간부를 양성하기 위하여 세운 학교로 무정(武亭) 장군이 교장을 맡았고 정율성이 교무부장을 담당했던 ‘화북조선혁명군정학교(華北朝鮮革命

軍政學校)(정설송, 1992, ①, p. 99)’에서 <조선의용군행진곡>, <혁명가> 등의 노래를 창작했다. 태항산에서 어려운 식량난에 처했을 때, 율성은 한국 전통 민요인 <도라지타령>을 개사한 <미나리타령>으로 부대원을 격려하기도 했다. 1944년, ‘화북조선혁명군정학교’의 모든 사람들을 중국 공산당 본부에서 연안으로 철수 시켰는데, 이 때 율성도 함께 2월에 다시 연안으로 들어간다.

6) 조선 인민군 시절

31세이던 1945년 8월, 일본이 투항하자 중국공산당의 결정에 따라 조선에 가서 사업을 하게 된다. 9월에 연안을 떠나 부인 정설송과 딸 소제(小提)를 데리고 보행으로 조선으로 가는 행군 도중에 <3·1 행진곡> 등의 노래를 구상하고, 떠난 지 3개월 만인 12월에 평양에 도착한다. 1946년 1월, 황해도 해주에 배치 받아 ‘도당 위원회’ 선전부장을 담임 하였고 해주에 ‘음악전문학교’를 설립한다. 이듬해 봄에 평양으로 전근되어 군대문화부장에 해당하는 ‘조선인민군구락부’ 부장을 담임하고 조선군 협주단을 창설하여 단장을 겸한다. 1948년에는 ‘조선인민군협주단’을 이끌고 2년간 북한 전역을 다니며 공연했다. 다음해에 ‘조선음악대학’ 작곡부 부장을 담임하였으며 1946년부터 1949년 기간에 <조선해방행진곡>, 후에 조선인민군군가가 된 <조선인민군행진곡>, <조중친선> 등의 노래와 <동해어부>, <두만강> 등의 대합창곡을 작곡했으며, 가곡 <그의 노래 소리 끝나지 않았다>를 창작하기 시작하였으나 6.25전쟁이 일어나는 바람에 끝내지 못한다. 그 이듬해인 1950년 6월 25일 조선전쟁이 폭발되자 중국과 북조선 두 나라 지도자의 협상을 거쳐 10월에 율성이 77세의 어머니를 모시고 중국으로 돌아와 중국 국적을 회복한다. 12월에 ‘중국인민지원군창작조’와 함께 조선에 가서 <중국인민지원군행진곡>, <지원군찬가>, <백운산노래> 등의 노래를 창작했다(정설송, 1992, ②, p. 229).

7) 중국 북경 시절

1951년 1월에 중국인민해방군을 따라 서울에 도착한 그가 전쟁의 틈바구니에서 길거리에 버려진 ‘조선궁정악보집’을 가지고 중국에 간다. 후 일 그가 세상을 떠나고 유족에 의해 악보집은 한국으로 돌아왔다. 4월, 조선으로부터 중국에 돌아와 북경인민예술극장에서 사업하였고, 7월에 베를린에 가서 [세계청년연환절](정설송, 1992, ②, p. 54)에 참가하고 동유럽의 여러 나라를 방문한다.

1952년 하반기에는 사천 천강 일대에 가서 생활을 체험하면서 뱃사공들의 매김

소리를 소재로 <강상지가(江上之歌)>를 창작하고 조선정전협정 체결 후 조선반도의 평화를 갈망하는 염원을 담아 <우리는 평화를 사랑해>, <평화의 합창>, 동요 합창곡 <평화의 비둘기> 등을 작곡했다(문화재단, 2014, p. 86). 이 시기에는 그의 염원인 조국과 중국, 동북아의 평화를 위한 곡을 많이 쓰게 된다. 1953년에는 ‘중앙가무단’으로 전근되었고 홍안령에 가서 생활을 체험하면서 <소흥안령노래>, <류송합창>, <홍안령에 눈꽃 날리네>, <채별가>, <여강배인수> 등의 노래와 대합창 <행복한 농장>, 동요 <생물표본을 채집하러가요> 등을 창작했다(문화재단, 2014, p. 86). 그의 나이 40세인 1954년에는 ‘중국음악과협회창작조’에서 사업하면서 주산군도에 가서 생활을 체험하고, 노래 <강대한 함대 바다를 달리네>, <바다 어부의 노래>, <포함대대 출동했네>, 동요 <치일생가(值日生歌)>, <구름> 등을 창작했다(문화재단, 2014, p. 86). 1955년, ‘중앙악단’에 전근되어 음악창작에 종사하며 동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요>, <우리는 행복해요>, <해바라기>, <노란 피꼬리>, <작은 연못>과 합창곡<우의평화행진곡> 등의 노래를 창작했다. 1956년에는 북경과 천진을 오가며 ‘중앙음악학원’에서 소련 전문가에게 작곡과 화성, 피아노를 배웠으며 호남, 광서, 귀주, 운남 등지에 내려가 생활을 체험하고 민간음악을 수집하면서 <아름다운 청도>, <철도노동자 노래>, 동요 <영원한 봄>, <대설(大雪)>, <아름다운 청도(靑島)>, <우리는 즐겁게 수영 하네>, <망아지처럼 달린다>, <3.1절을 즐겁게 지내자>, <소년운동원 노래>, <유쾌한 동년>, 등을 창작했다. 1957년에는 운남성 소수민족인 백족의 설화를 소재로 하여 오페라 <망부운(望夫雲)>을 창작하고, 가요 <시내물은 룡갈네>, <장강 대교>, <처녀는 누구 집으로 달려가나>, 동요곡 <하늘의 별무리여>, <작은 달>, <꼬마목공>, <작은 얼룩고양이>, <송이송이 눈꽃 하늘에 내리네>, <가마우지> 등을 창작했다. 1958년에는 ‘문예계복건전선위문단’에 참가하여 복건성을 방문하고 <해안의 초병>, <유쾌한 해안포병>, <우리는 인민의 쾌속정> 등의 노래를 창작하였으며, 동요 <푸른 조국>, <나는 어린 농업가>, <소년이 사육장을 만들다>, <어린사원>, <적비가(積肥歌)>, <습분가(拾糞歌)> 등과 모택동의 시사 작곡을 시작한다. 1959년에는 동요 <홍령건과 홍기수(紅領巾과 紅旗手)> 등과 모택동의 시사를 많이 작곡한다. 46세였던 1960년에는 호남 강서에 가서 생활을 체험하면서 대합창 <추수봉기>와 동요 <흰 비둘기 높이 날아>, <군인아저씨는 보초를 서네>를 창작했다. 1961년-1976년 시기에는 동요 <녹화소能手(綠化小能手)>, <아름다운 마을>, <나는 한송이 붉은꽃>, <제비가 돌아 왔네>, <풀을 베다>, <비료를 나르다>, <푸른 밀>, <풍량을 맡받아 단련한다>등을 창작했다(문화재단, 2014, pp. 96-106). 1962년에는 그의 오페라인 <망부운>이 절친했던 당시 중국의 외교부장을 지냈던

진의(陳毅)(한국브리태니커 온라인, Ch'en , 陳毅. 2015.11.05)의 관심 아래 북경에서 공연되었고, 51세이던 이듬해에 가무극 <중일청년친선>의 음악을 창작했다(전남일보사, 2011., p. 101).

8) 문화대혁명 시절

1966-1976년, 중국공산당 내부의 반대파를 제거하는 권력 투쟁으로 시작하여 4인방(왕홍문 王洪文, 장춘교 張春橋, 강청 江青, 요문원 姚文元)이 득세 하였으나 그들이 1977년 8월, 제11기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축출되고 종결이 선포되었던 ‘문화대혁명(이종한, 2006, p. 274)’ 시기에 율성은 방송, 연주, 출판을 금지 당하고 창작의 권리를 빼앗긴다. 이 시기에 율성은 북경 인근의 강에서 천렵을 자주 하였으며, 북한의 김일성이 중국을 방문하였을 때, 자기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며 마중을 가지 않았다는 사실과 ‘죽기 전에 꼭 고향에 한번 가보고 싶다’고 말했다는 증언을 북경 강가 동네에서 율성과 사귀었던 유채원(劉彩源)(이종한, 2006, p. 275)이 했다. 56세였던 1970년에 모택동 주석의 시사를 작곡한 20수의 작품을 정리하였으나 공연의 기회를 얻지 못하였고, 1972년 진의(陳毅)의 시사 <공남유격사>, <매령3장>, <동지에게 드림>을 작곡 하였으며, <해방군런가> 등의 노래를 창작하였으나 발표하지 못하게 된다. 1973년부터 1974년까지의 기간에는 연극 <운천전가>의 음악과 영화대본 <무장선전대> 초고 등, 연극, 영화음악의 창작에도 참여한다. 그의 나이 향년 62세인 1976년 10월, ‘문화대혁명’을 주도했던 ‘4인 무리’가 분쇄되자 ‘중앙악단당위원회’ 지도사업에 참가 했다. 그리고 타오르는 열정으로 새로운 창작을 시작 하였는데, 주은래(周恩來)총리를 노래하는 연가와 건군 50주년을 위한 대형 작품을 창작하다가 12월 7일 불행하게 뇌출혈로 서거한다. 중국 전역에서 비보를 듣고 조문하였으며, 북경 팔보산에 있는 혁명열사릉에 안장되었다(정설송, 1992, ①, p. 230).

2. 정율성 음악의 배경

1) 시대적 배경

정율성이 당면한 시대를 살펴보면 갑오전쟁 이후의 조선은 중국과 비슷한 처지로 일제의 식민지로 전락되어 동방 열강의 압박을 받았고, 이러한 민족모순을 해결하고자 양국에서는 국가독립과 민족해방을 쟁취하기 위한 운동이 연이어 폭발

하였다. 일제 강점기인 1919년 3월 1일 조선에서는 민족독립운동이 일어났는데, 율성은 중학교 시절부터 광주에서 일어난 학생운동에 참가한다. 그러던 1933년, 중국 남경의 ‘조선혁명군사정치간부학교’ 출신으로 일제의 체포를 피해 활동하던 셋째 형 의은(義恩)을 따라 중국으로 건너와 ‘조선혁명군사정치간부학교’에 입학하여 교육을 받은 후, 1934년부터 조선비밀항일조직에서 항일활동에 참가한다.

그가 활동의 무대로 옮긴 중화민국은 동방의 유구한 민족이었지만 근대에 접어들어 신속하게 개혁한 서방 열강과 달리 사회내부의 특수한 정치경제 구조와 문화전통의 제약으로 여전히 봉건사회의 질고에 묶여 있었다. 한편 일본은 1868년 명치유신 후 자본주의 발전단계에 진입하여 대확장을 시작했다. 1931년 9.18 만주사변 후, 일제는 중국 동북을 무장 점령하였고, 1937년 ‘노구교사변’을 계기로 중국은 전면적인 항일전쟁이 폭발하였다. 이 시기에 조국의 독립을 위해 중국으로 건너 와 있던 율성에게 국가와 민족의 원한인 일본에게 항거하는 것이 민족독립과 해방, 세계평화를 위한 필생의 이상과 목표가 된다.

2) 이념적 배경

민중과 민간문화에 대한 율성의 천재적 감수성은 그의 태생, 성장과정과 무관하지 않다. 가문의 선조들이 일찍부터 봉건사상을 탈피하고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집안에서 가난한 농부로 고난과 전쟁 시대를 겪었던 부친 정해업은 일찍 일제를 물리치는 운동에 참가하였고, 중국에까지 와서 항일전쟁에 참가하였으며, 정율성의 큰형 정효룡(鄭孝龍)과 둘째형인 정충룡(鄭忠龍)이 일제의 추적을 피해 중국 상해임시정부로 떠난 가족사는 그의 이념 형성에 크게 작용했다.

정율성이 아동기를 지낼 때, 같은 동네에 친일고관을 타격하고 관현악단을 구성하여 광주에서 자선공연을 했던 김태오 라는 청년에게도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으며(광주문화재단, 2012, p. 72), 중국에 가서는 김원봉의 ‘의열단’에서 세운 ‘조선혁명군사정치간부학교’의 역사 교육과정을 통해 항일정신과 민족, 민중사상을 고취시켰다. 1937년에 남경에서 선성해(洗星海)를 만나 그가 지은 <구국군가>를 불렀을 때, 정율성의 열정에 감동된 선성해는 그의 음악 경력을 들은 후 율성에게 혁명음악을 창작해보라고 격려하였는데, 선성해의 고무는 정율성에게 음악창작에 대한 방향과 열정을 심어 주었다. 1937년 10월, 나라 잃은 비통함과 전쟁의 세례를 겪은 율성은 사상적으로 이미 성숙 하였고, 쉽지 않은 연안행을 강행한다. 당시 연안은 중국 공산당의 중심지였고 수많은 애국청년들이 항일구국열정을 품고 모여들었던 곳이다. 그는 그곳에서 음악교편을 잡고 중국 공산당의 사상이 충

실한 중국여성 정설송과 결혼하여 해방의 날까지 항일 혁명운동을 전개한 진보적 예술인으로 살았다. 그는 조국이 일제로부터 해방되자 중국 공산당의 명에 의해 북조선으로 가서 음악활동을 하다가 6.25 전쟁이 시작된 해에 중국 북경(北京)으로 다시 돌아와 다양한 장르의 성악곡을 창작했다. 그에게 활동이 금지된 ‘문화대혁명’ 시절을 겪지만 확고한 의지와 창작열로 모택동의 시사를 작곡했으며, 화해가 강조된 <우의평화행진곡>, 그리고 1951년-1965년 사이에는 동요 <평화의 비둘기>, <우리는 행복해요> 등을 작곡하여 민족주의자, 국제주의자, 평화주의자로 그의 이념을 평가 받았다(정설송, 1992, ②, p. 160).

3) 정서적 배경

그의 풍부한 정서감은 어린 시절 광주 양립정 앞 광주천과 화순 능주의 지식천에서 물고기를 잡고 놀았던 자연과의 친화적인 생활에서 시작 되었다. 민족의 정서감이 살아있는 민요를 즐겨 부르며 노래 지도하기를 좋아했던 그는 유소년기에 큰외삼촌 최흥종(崔興琮)의 집에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들었던 명곡을 통해서 음악적 감수성이 깊어 졌으며 ‘넌 음악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큰외삼촌의 격려를 듣고 음악세계를 동경하게 된다. 기독교 학교였던 ‘송일소학교’와 전주 ‘신흥중학교’ 시절에 접한 종교음악과 ‘수피아여학교’ 음악선생님을 역임한 누이 봉은(鳳恩)을 통해 서양음악이 주는 영감과 접하고, 만도린 등 여러가지 악기를 다룰 수 있게 된다. 그의 가곡 작품을 들은 많은 한국인들이 ‘마치 찬송가처럼 들린다’라고 소감을 말하는 것으로 보아서 그가 청소년 시절 수학했던 학교에서 받은 정서감이 일생의 작품 분위기에 영향을 크게 준 것으로 보인다.

그가 중국으로 건너가 남경에서 상해를 오가며 소련 ‘레닌그라드음악원’ 출신인 크리노아(krenowa) 교수에게 성악 랫슨을 받았는데 그에게서 이탈리아로 유학을 권고 받은 것은 성악적인 소질과 정서감이 출중했기 때문이다. 중일 전쟁이 폭발하고 중국 남경에서 연안으로 떠나던 날, 바이올린과 만돌린을 매고 <세계명곡집>과 <서방가곡 명곡단편>을 품에 지니고 있었던 그는 항일 정신으로 무장된 음악전사가 되어 있었다.

연안에서 율성은 중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고원과 백설 덮인 동북변경, 서북지구와 동해에 가서 장기간 농촌, 공장, 삼림, 병영에서 생활하며 새로운 창작소재를 찾았는데, 창작과정에서 누구보다 신중함과 집중하는 열정을 가졌던 그는 노래를 부를 당사자를 깊이 이해하고자 하는 정성이 남달랐기 때문이다. 부인 정설송과 지인들의 증언에 의하면 율성은 항상 생활현장에서 공인, 농민, 아동들과 벗이 되

있고 그 속에서 창작의 원동력을 얻었다고 한다. 생활인으로서의 그는 한결같이 성실하였고, 아들로써 지극한 효자였으며, 딸에게는 책임을 다하는 믿음직한 부친이었던 그는 남편으로서 외교 사업에 종사하는 아내가 집안 걱정 없이 일에 전념할 수 있게 해 준 희생적인 정신을 가진 매우 모범된 생활 예술인 이었다.

3. 정율성 음악의 특징

1) 다양한 장르의 창작성

1936년 남경시절부터 시작하여 40여 년간 그는 독창, 제창, 소합창, 대합창, 동요, 뮤지컬, 오페라, 영화음악 등 다양한 형식의 작품을 360여 곡이나 창작 하였으며 만년에는 기악곡과 교향곡의 창작까지도 시도했다. 그 가운데 <연안송>은 그의 나이 24세에 창작한 곡으로, 연안으로 상징되는 항일운동의 정신과 기상을 전국 방방곡곡으로, 나아가 전 세계에 알린 불후의 명곡으로 오늘날 까지 인구에 회자되고 있다. <팔로군행진곡> 또한 동시기에 작곡한 곡으로 현재 중국 인민해방군의 정식 군가로 지정되어 있으며, 그의 창작동요는 오늘날에도 초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되어 중국의 어린이들로부터 애창되고 있다. 또한 많은 중국의 유명 시인들의 작품에 곡을 붙인 음악이 많고, 대중국문단을 대표하는 작가들의 작품 뿐 만 아니라 김 파, 김학철 같은 조선족 동포문단을 대표하는 작가들의 작품에도 곡을 붙였으며, 북한에서 활동하던 시기에는 북한을 당시 대표하던 시인 조기천과 박세영의 작품에도 곡을 붙였다. 이것은 그의 문학적인 감수성이 깊고 친화력이 있는 창작가임을 증명한다 할 수 있다. 또한 후기에 작곡한 40여곡의 동요는 어린이들의 감성에 동화되는 곡으로 순수한 그의 감성이 돋보인다.

2) 개성 있는 작곡기법

서양의 작곡기법과 중국의 전통음악 및 소수민족음악을 잘 조화시켜 작품으로 창작한 율성은 자신만의 독특한 개성을 지니고 있다. 그는 서양음악의 토착화와 주체성의 확립을 강조하여 왔으며, 현대적 감각의 개성 있는 작품 창작에 힘썼다. 당시에는 항일 전쟁이라는 특수한 전투배경과 공산주의라는 새로운 체제하에서 한 부류는 서양음악을 거부하는 입장이고, 다른 하나는 서양의 음악적 기틀에 지나치게 구애되어 그것을 교조적으로 답습, 모방하는 입장이 있었는데, 이에 대하여 그는 남들의 작곡경험을 배워야 하지만 그대로 옮겨서는 안 되며, 서양의 가

곡을 마땅히 배워야 하나 내용을 고려하지 않고 형식만 추구하여서는 그 악곡이 생명을 가질 수 없다고 주장하며, 옛것을 오늘에 맞게, 서양의 것을 중국화 한 작품의 창작에 주력했다(정설송, 1992, ②, p. 34).

3) 선율선법의 특징

그는 선율, 선법(旋法), 박자와 곡조를 처리하는 면에서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다. 중국 대다수 음악이 5음(궁, 상, 각, 치, 우) 음계를 사용하였지만 율성은 변치. 변궁을 더하여 서양음계로 하면 도, 레, 미, 파#, 솔, 라, 시 에 해당하는 중국 북쪽지방의 7음 음계(로베르트 라하만, 1986, pp. 58-60)를 사용하기도 하였고, 중국에서는 드문 6/8 박자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그의 곡은 흔히 고음과 장음이 많지만 변화가 심하면서도 어색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까다로운 감을 주지 않는다. 그의 대부분의 곡은 고음을 운용하고 선율을 반복과 함께 상승시켜 격정적인 심정을 끌어낸다. 군가 및 동요를 비롯한 어떤 노래들은 마치 고음이 많을수록 더욱 격정이 오르는 듯이 제한이 없고, 부르는 사람으로 하여금 행진의 느낌과 더불어 결의에 차게 만드는 효력이 있다. 그의 많은 작품의 선율은 한 번의 고음을 이용한 절정감 표현이 아니라 다음에 더 높은 고음으로 승화시키는 멜로디가 존재하므로 노래할 때에는 앞부분 고음에서 무리하지 않고 다음 고음 부분을 위해서 절제하지 않으면 안 되는 특징이 있다(정설송, 1992, ②, p. 37). 또한 멜로디가 시작하는 부분에서 큰 도약의 표현이 많으며, 도돌이틀 활용한 유절형식이 대부분으로 대조적인 크기로 노래해야 하는 경우도 많다. 선율의 큰 특징 중에는 악구의 끝 음이 다음 악구의 첫 음과 동일 음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노래하는 이들이 음정을 잡기에 편리함이 있다.

4) 작품형식의 특징

가곡창작영역에서 정율성이 취급한 범위는 작품의 형식이 매우 다양하고 또한 넓다. 그는 기백이 웅대한 <팔로군행진곡>등의 수많은 군가풍 노래를 썼고, 웅장하고 아름다운 서정가곡풍의 <연안송>, <영매>, <황학루>와 민요풍의 <연수요>, 노동요풍의 <생산요>, <목별가>, <채별가>, <여콤파인수>, <철로공인가> 등의 곡이 있으며, 대자연과 사회상을 노래한 서사풍의 <수조가두>, <도소산>, <아름다운 서사>, <등려산>, <장사>, <나는 하늘에서 조국을 노래한다>, <홍안령에 눈이 내리네>, <매령삼장>, <신산가>, <아랑에게>, 소가극 <재삼림중>,

서남소수민족의 전설을 소재로 한 정통오페라 <망부운>, 대합창곡 <팔로군대합창> 등, <우리는 행복해요>, <평화의 비둘기>, <초록빛 나라>, <노란피꼬리>, <가마우지>, <작은 연못> 등의 동요, 세계평화와 친선을 노래한 <우의평화행진곡> 등의 화목풍의 노래, 모택동의 20편 서사시에 곡을 붙인 연작풍의 노래 등을 썼다. 관현악곡과 영화음악까지 망라하면 거의 모든 종류의 음악을 창작한 것이다(광주문화재단, 2012, p. 46). 그의 악보를 보면 군가를 제외한 가곡이나 동요에서 노래하는 대상을 남,여 파트별로 확실하게 설정하고 표시해 놓았으며, 적당한 빠르기를 제시하여 놓았고, 장단병행조를 많이 사용하여 감정의 선이 부드럽게 연결되는 효과를 나타냈다. 대부분의 정통가곡이나 동요는 마디수가 일정한 형식의 틀을 가지고 있으나 율성의 많은 곡은 몇 마디가 길거나 짧은 곡이 많은데, 형식을 탈피한 자유로움이 두드러진다. 특히 그가 작곡한 동요는 묘사적이며, 친진스럽고, 활발하며, 독특하고, 유쾌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4. 정율성의 대표적인 동요곡 분석과 가창방법 제시

1) 우리는 행복해요(我們多么幸福)

① 작곡 배경

<우리는 행복해요>는 43세의 정율성이 중국 중앙악단에 근무하던 1955년에 창작했다. 1980년 전국 소년아동 문예창작평가회의에서 1등으로 선정된 동요곡으로 아동들이 나라의 보살핌에 대해 고마움과 자긍심을 가지고 밝게 자라가는 모습을 그렸다. 오늘날 중국의 초등학교와 방송프로, 영화음악에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광주문화재단, 2014, p. 89), 어린이 합창단에서 많이 애창 되는데 우리나라에 보급된 그의 동요 중에서 가장 널리 알려져 있다.

② 시 원문, 병음 및 가사번역

我們多么幸福

wǒ men duō me xìng fú

우리는 행복해요

我們的生活多么幸福,
wǒ men de shēng huó duō me xìng fú ,
我們的學習多么快樂,
wǒ men de xué xí duō me kuài lè ,
我們感謝親愛的毛主席,

우리의 삶은 너무나 행복하다.
우리의 공부는 너무나 즐겁다.
우리는 사랑하는 모 주석에게 감사드린다.

wǒ men gǎn xiè qīn ài de máo zhǔ xī ,
建設許多美麗的學校,
jiàn shè xǔ duō měi lì de xué xiào ,
不論是城市還是鄉村,
bú lùn shì chéng shì hái shì xiāng cūn ,
所有的孩子都去學習。
suǒ yǒu de hái zǐ dōu qù xué xí 。
哈哈 哈 哈哈,
hā hā hā hā hā ,
哈哈 哈 哈哈,
hā hā hā hā hā ,
每天的早晨背着書包,
měi tiān de zǎo chén bèi zhe shū bāo ,
我們高高興興走進校門,
wǒ men gāo gāo xìng xìng zǒu jìn xiào mén ,
今天我們跟着老師,
jīn tiān wǒ men gēn zhe lǎo shī ,
學習本領鍛煉身體,
xué xí běn lǐng duàn liàn shēn tǐ ,
明天我們就象小鳥一樣,
míng tiān wǒ men jiù xiàng xiǎo niǎo yī yàng ,
飛到祖國建設的崗位。
fēi dào zǔ guó jiàn shè de gǎng wèi 。
快樂的節日穿着新衣,
kuài lè de jiē rì chuān zhe xīn yī ,
抱着鮮花排好隊伍去游行,
bào zhe xiān huā pái hǎo duì wǔ qù yóu háng ,
多少英雄向我們招手,
duō shǎo yīng xióng xiàng wǒ men zhāo shǒu ,
多少朋友向我們歡呼,
duō shǎo péng yǒu xiàng wǒ men huān hū ,
都說我們將來建設祖國,
dōu shuō wǒ men jiāng lái jiàn shè zǔ guó ,
每一個都是英雄模範。
měi yī gè dōu shì yīng xióng mó fàn 。
哈哈 哈 哈哈,
hā hā hā hā hā ,

많은 아름다운 학교를 건설해 주셔서
도시든 시골이든
아이들은 모두 공부하러 간다.
하하 하 하하
하하 하 하하
매일 아침에 가방을 들고
우리는 유쾌히 학교에 들어간다.
오늘 우리는 선생님을 따라서
기술을 배우고 신체를 단련한다.
내일 우리는 새처럼
조국 건설하는 곳에 날아간다.
즐거운 명절에 새 옷을 입고
예쁜 꽃을 들고 줄을 서서 행진한다.
많은 영웅들은 우리에게 손을 흔들고
많은 친구들은 우리에게 환호한다.
우리 모두는 앞으로 조국을 건설한다고
저마다 다 모범적 영웅이 된다.
하하 하 하하

哈哈 哈 哈哈,	하하 하 하하
hā hā hā hā hā ,	
我們的生活多么幸福。	우리의 삶은 너무나 행복하다
wǒ men de shēng huó duō me xìng fú 。	
我們的學習多么快樂。	우리의 공부는 너무나 즐겁다.
wǒ men de xué xí duō me kuài lè 。	

③ 악곡 분석

《우리는 행복해요》는 3박자의 왈츠풍과 당김음을 사용하여 매우 유쾌하고 발랄한 느낌을 주는 곡이다. 아동들의 웃음소리를 작은악절로 반복시키는 부분은 쉼여름을 이용하여 표현의 폭을 넓힐 수 있고 합창으로 편성하기에 매우 유리한 곡이다. 원본에 제시된 나타냄말은 ‘초쾌 활발지(稍快 活潑地)’로 표시되어 있는데 ‘빠르고 활기차게’로 해석 된다. 가사에 정치적인 계몽성이 엿보이는 것은 혁명이 무르익던 당대의 사회분위기와 연관이 있어 보인다. 제시된 악보의 후렴구는 3도 위주의 2부 선율로 편성되어 있고, 종지를 위한 반복부분을 제외하면 정석적인 네도막 형식이다.

<Table 1> Song form

Form		Measure	Fit Measures		key	Metre
A	a	1-4	4	8	C	3/4
	a'	5-8	4			
B	b	9-12	4	8		
	b'	13-16	4			
C	a''	17-20	4	8		
	c	21-24	4			
D	d	25-28	4	16		
	e	29-32	4			
	e'	33-40	8			

④ 가창방법 제시

‘우리는 행복해요’의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감정이입이 충분한 상태에서 시작해야 하며, 의성어(웃음소리) 표현 할 때 강약을 조절하고, 엑센트, 점점 세게, 점점 여리게 등의 악상을 지켜서 노래하도록 한다. 합창의 경우에는 후렴구 부분에 가사에 어울리는 율동과 함께 연주하면 효과적이다.

1. 형식 : 4도막, 3박자 왈츠풍

2. 배경 : 1953년 중앙악단 근무시절,
아동에게 자긍심을 심어준 곡

3. 분위기 : 빠르고 활발하게, 춤을 추듯이

4. 중요한 주법 : ① 밝은 마음, 표정으로 노래

② 후렴구는 율동과 함께 표현, 돌림노래 가능함

③ 싱크페이션 표현, 셈여림의 기법 적용

우리는 행복해요

(3도 화음 위주 2부 합창곡)

金 凡 작사
(김 범)

우 리 의 생 활 행 복 해 요
아 침 마 다 운 우 념 활 령 섹 가 방 해 메 고
공 부 하 는 우 린 즐 기 워 라 고 마 위 요 사 랑 하 는
기 름 에 님 처 을 학 교 가 네 선 생 님 의 말 씀 을
꽃 행 별 지 어 나 아 가 네 위
우 리 조 국 아 름 다 운 학 교 를 세 위
따 라 서 책 읽 고 몸 일 보 도 단 려
손 하 고 우 리 보 고 환 호 하
(f) (mp) (mf) cresc
취 해 도 시 와 시 골 어 디 서 나
네 내 일 은 은 모 두 새 들 처 럼
미 래 는 는 모 두 우 리 의 것
21 친 구 들 모 두 공 부 하 네 하 하 하
회 망 을 안 고 날 아 가 리
새 로 운 세 상 만 어 요
26 하 하 하 하 하 하 하 우 리 의 생 활
31 행 복 해 요 하 하 하 하 하 하 하
36 하 하 공 부 하 는 우 린 즐 기 워 라
(rit) (-) 길게

[악보 1] 우리는 행복해요(我們多么幸福)(광주문화재단, 2015, p. 8).

2) 푸른 조국(綠色的祖國)

① 작곡 배경

《푸른 조국》은 46세의 정율성이 문예위문단으로 활동하며 모택동의 시사에 곡을 붙이기 시작하던 1958년에 창작했다. 아동들에게 조국애와 자연 가꾸기를 권장하는 계몽적 성격의 노래이다. 가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평소에 관찰과 체험을 바탕으로 자연과 생활에 밀착된 작품을 창작했던 그의 작품이 잘 나타나 있으며, 간결하고 절제된 표현의 대표적인 동요이다.

② 시 원문, 병음 및 가사번역

綠色的祖國

푸른 조국

lǜ sè de zǔ guó

荒山野岭种植松杉果树,	황량한 산야에 삼나무를 심는다.
huāng shān yě líng zhòng zhí sōng shān guǒ shù ,	
河邊路旁栽下垂柳白楊,	강과 가로에 수양버들과 백양목을 심는다.
hé biān lù páng zāi xià chuí liǔ bái yáng	
給山野挂起紅色的帘子,	산야에 붉은 커튼도 치고 청록색의
gěi shān yě guà qǐ hóng sè de lián zǐ ,	장막도 친다.
翠綠的幔帳。	
cù lǜ de màn zhàng 。	
黃鶯叫嘎咕嘎咕,	피꼬리는 까구까구 노래하고
huáng yīng jiào gā gū gā gū ,	
布谷鳥布谷布谷,	빼꾸기는 빼꼭빼국 노래하고,
bù gǔ niǎo bù gǔ bù gǔ ,	
在這綠色的祖國自由歌唱。	이 녹색 나라에 자유롭게 노래한다.
zài zhè lǜ sè de zǔ guó zì yóu gē chàng 。	
新鮮空氣洗淨天空灰塵,	신선한 공기는 하늘의 먼지를 씻어내고
xīn xiān kōng qì xǐ jìng tiān kōng huī chén ,	
涼爽清風吹走火熱的旱風,	시원한 바람은 뜨거운 바람을 몰아낸다.
liáng shuǎng qīng fēng chuī zǒu huǒ rè de hàn fēng ,	
讓建築工人隨意挑選高大的木材。	건설공들은 마음대로 크고 긴 목재를
ràng jiàn zhù gōng rén suí yì tiāo xuǎn	고르게 한다.
gāo dà de mù cái 。	
要讓那金黃的稻麥,	황금색의 벼와 보리가
yào ràng nà jīn huáng de dào mài ,	
在這叢林的懷抱中自由生長。	무성한 숲에서 자유롭게 자라게 한다
zài zhè cóng lín de huái bào zhōng zì yóu shēng zhǎng 。	

林間大地收藏山洪雨水,	숲의 대지는 산의 홍수를 껴안고
lín jiān dà dì shōu cáng shān hóng yǔ shuǐ ,	
水災旱災永遠被人遺忘,	사람들은 영원히 홍수와 가뭄을 잊어버리고
shuǐ zāi hàn zāi yǒng yuǎn bèi rén yí wàng ,	
讓濃蔭花影在小河的綠波里隨風蕩漾。	녹음방초의 그림자가 시냇물의 푸른 물결을
ràng nóng yīn huā yǐng zài xiǎo	따라 흔들린다.
hé de lǜ bō lǐ suí fēng dàng yàng 。	
金黃的梨子橘子,	황금빛의 배와 귤
jīn huáng de lí zǐ jú zǐ ,	
鮮紅的蘋果海棠,	새빨간 사과와 해당은
xiān hóng de píng guǒ hǎi táng ,	
蓋住了田野,	논과 밭을 덮고
gài zhù le tián yě ,	
遮住了山崗。	언덕을 덮는다.
zhē zhù le shān gǎng 。	

③ 악곡 분석

《푸른 조국》은 행진곡풍의 간결한 2박자 곡이다. 피코리 울음소리 다음 마디에 듣는 모습과 메아리를 온쉼표로 표현하였으며, 원본에 제시된 나타냄말은 ‘중속 우미활발(中速 尤美活潑)’로 표시되어 있는데 ‘보통빠르기로 우아하고 활기차게’로 해석 된다. 작은악절 마다 간결하면서도 새로운 선율이 연결성을 가지고 있고, 뽀박은 역동성을, 4분 쉼표는 절제를 표현하고 있으며 네도막 형식이다.

<Table 2> Song form

Form		Measure	Fit Measures		key	Metre
A	a	1-4	4	8	C	2/4
	b	5-8	4			
B	c	9-12	4	8		
	d	13-16	4			
C	e	17-19	3	6		
	f	20-22	3			
D	g	23-26	4	8		
	h	27-30	4			

④ 가창방법 제시

‘푸른 조국’은 소풍을 가며 부르는 행진곡 풍으로, 가사에 나타난 사물의 모방표현과 온쉼표 마디의 메아리 표현을 극적으로 해야 한다.

푸른조국

1. 형식 : 4도막 형식의 행진곡 풍
2. 배경 : 1958년, 조국애를 강조한 곡
3. 분위기 : 중간 속도, 우아하고 활발하게
4. 중요한 주법 : ① 팡파레 속에서 행진하는 느낌 표현
② 땀방울, 의성어(피땀) 표현을 효과있게
③ 온음표 부분은 앞마디 의성어 표현을 메아리처럼 반복
④ 처음과 끝부분 악절을 펼쳐듯이 노래

管 樺 작사
(관 화)

(f) (팡파레 울리듯) (짧게) (mf)

산 기 슥 에 과 일 나 무 심 고 길 양 편 에
땀 은 공 기 셋 어 내 네 번 지 솔 솔 바 에
푸 른 숲 은 산 사 태 를 막 고 흥 수 가 략 롬

6 (짧게) (mf)

수 양 버 들 심 자 위 산 과 들 모 두
양 아 내 데 저 위 집 깃 는 목 두
영 영 꽃 아 냈 네 시 냇 물 출 수
출

11 음정주의

붉 은 발 치 고 푸 른 옷 입 었
큰 재 목 품 라 들 어 - 울 리 가
꽃 발 을 에 돌 아 흘 - 러 가

16 (mf) (메아리처럼 표현)

네 네 피 코 리 피 꽃 피 송 이 배 꼭 새
네 네 셋 누 런 배 와 글 이 - 노 오 란
간

21 (메아리처럼 표현) (mf)

배 꼭 땀 꼭 푸 른 조 국 강 산 에
벼 이 삭 이 푸 푸 른 조 국 강 산 에
사 과 해 당 화 가 숲 언 품 터 속 에
주 령

26 (f) (팡파레 울리듯 펼쳐서 표현)

서 서 노 래 하 - 네
서 서 자 라 나 - 네
주 령 매 달 렸 - 네

[악보 2] 푸른 조국(綠色的祖國)(광주문화재단, 2015, p. 11).

3) 평화의 비둘기(和平鴿)

① 작곡 배경

《평화의 비둘기》는 6.25 한국전쟁이 끝나고 분단이 시작되던 1952년에 창작했다. 조국의 현실을 보며 마음 아파하던 그는 이 시기에 창작한 많은 곡에서 ‘평화’라는 제목과 가사를 볼 수 있다. 《우리는 행복해요》와 더불어 그의 동요 중에서 가장 애창되는 노래이며, 1952년 10월 16일 <북경일보>에 그가 설명하기를 ‘이 곡은 《평화의 대합창》곡 일부분으로 새 중국의 어린이들의 평화를 사랑하는 즐거운 정서를 표현하였다’고 하였다. 이 노래는 러시아어, 체코슬로바키아어 등으로 번안되어 국제적으로 호평을 받았다(광주문화재단, 2014, pp. 86-87).

② 시 원문, 병음 및 가사번역

和平鴿

hé píng gē

和平鴿, 和平鴿, 飛呀 飛呀 飛呀!
hé píng gē , hé píng gē , fēi ya
fēi ya fēi ya !
我們少先隊員,
wǒ men shǎo xiān duì yuán ,
熱愛我們的祖國,
rè ài wǒ men de zǔ guó ,
哈 哈 哈!
hā hā hā !
我們都熱愛祖國,
wǒ men dōu rè ài zǔ guó ,
哈哈 哈哈 哈哈 哈哈 哈哈 哈哈
我們祖國多美麗,
wǒ men zǔ guó duō měi lì ,
哈哈 哈哈 哈哈 哈哈 哈哈 哈哈
hā hā hā hā hā hā hā hā hā hā
我們努力學習,
wǒ men nǔ lì xué xí ,
學會許多本領。

평화의 비둘기

평화의 비둘기, 평화의 비둘기, 날아라,
날아라, 날아라!
우리 소년대원들은
우리의 조국을 사랑한다.
하 하 하!
우리는 다 조국을 사랑한다,
하하 하하 하하 하하 하하 하하
우리의 조국은 너무나 아름답다
하하 하하 하하 하하 하하 하하
우리는 열심히 공부하고
많은 기술을 배운다.

xué huì xǔ duō běn líng 。 全世界的兒童，	전 세계의 어린이들은
quán shì jiè de ér tóng , 我們都是好朋友，	우리의 다 친한 친구고
wǒ men dōu shì hǎo péng yǒu , 我們都是新社會的主人翁，	우리는 다 새 세상의 주인공이다
wǒ men dōu shì xīn shè huì de zhǔ rén wēng , 全世界的兒童們，	전 세계의 어린이들은
quán shì jiè de ér tóng men , 歌唱我們的和平鴿。	우리 평화의 비둘기를 노래한다.
gē chàng wǒ men de hé píng gē 。 我們少先隊員，	우리 소년대원들은
wǒ men shǎo xiān duì yuán , 个个都是小主人，	저마다 다 주인공이고
hēi hēi hēi ! 學習工人叔叔，	공인 아저씨에게서 배우고
yào xué xí gōng rén shū shū , 嘿 嘿 嘿!	헤 헤 헤!
hēi hēi hēi ! 把世界建築得永遠幸福和美麗，	전 세계를 영원히 행복하고 아름답게
bǎ shì jiè jiàn zhù dé yǒng yuǎn xìng fú hé měi lì , 就像是花園一樣，	건설 한다 화원과 같이
jiù xiàng shì huā yuán yī yàng , 啦啦啦啦啦 啦啦啦	라라라라라 라라라
lā lā lā lā lā lā lā lā 世界各國的兒童，	전 세계의 어린이들은
shì jiè gè guó de ér tóng , 我們都是好朋友，	우리의 다 친한 친구고
wǒ men dōu shì hǎo péng yǒu 啦啦啦啦啦 啦啦啦	라라라라라 라라라
lā lā lā lā lā lā lā lā 同我們來握手，	우리와 손을 잡고
tóng wǒ men lái wò shǒu , 同我們在一起跳舞歌唱。	우리와 함께 노래하고 춤을 춘다.

tóng wǒ men zài yī qǐ tiào wǔ gē chàng	
我們少先隊員，	우리 소년대원들은
wǒ men shǎo xiān duì yuán ,	
夏天到夏令營，	여름에 캠프에 가고
xià tiān dào xià líng yíng ,	
啦 啦 啦!	라 라 라!
lā lā lā !	
我們在帳篷里， 我們在山林里，	우리의 텐트에 우리의 숲에서
wǒ men zài zhàng péng lǐ , wǒ men zài shān lín lǐ ,	
啦啦 啦啦 啦啦 啦啦 啦啦 啦啦	라라 라라 라라 라라 라라 라라
lā lā lā lā lā lā lā lā lā lā	
鍛煉我們的身体，	우리의 신체를 단련하고
duàn liàn wǒ men de shēn tǐ ,	
爲祖國做事情。	조국을 위하여 일을 한다.
wéi zǔ guó zuò shì qíng 。	
全世界的兒童，	전 세계의 어린이들은
quán shì jiè de ér tóng ,	
我們都是好朋友，	우리의 다 친한 친구고
wǒ men dōu shì hǎo péng yǒu ,	
我們都是新社會的主人翁，	우리는 다 새로운 세상의 주인공이다
wǒ men dōu shì xīn shè huì de zhǔ rén wēng ,	
全世界的兒童們，	전 세계의 어린이들은
quán shì jiè de ér tóng men ,	
歌唱我們的和平鴿。	우리 평화의 비둘기를 노래한다.
gē chàng wǒ men de hé píng gē 。	

③ 악곡 분석

《평화의 비둘기》는 원곡이 2부로 편성되었으며 반복부분까지 더하면 128마디에 이르는 행진곡풍의 대합창곡이다. 축제의 장에서 비둘기의 비행모습과 아동의 합창하는 장면이 연상되는 곡으로 원본에 제시된 나타냄말 ‘초쾌 활발지(稍快 活潑地)’는 ‘빠르고 활기차게’로 해석 된다. 아래 성부의 지속적인 동일 음으로 웃음 소리를 표현한 것은 매우 독창적이며, 스타카토와 당김음을 이용하여 역동성을 강조하였다.

<Table 3> Song form

Form			Measure	Fit Measures			key	Metre
I	A	a	1-4	4	8	30	F	2/4
		b	5-8	4				
	B	c	9-12	4	8			
		d	13-16	4				
	C	e	17-20	4	14			
		f	21-26	6				
		g	27-30	4				
II	D	f	31-34	4	8	16		
		g'	35-38	4				
	E	h	39-42	4	8			
		i	43-46	4				
III	A	a'	47-50	4	8	32		
		b	51-54	4				
	B	c	55-58	4	8			
		d	59-62	4				
	C	d'	63-66	4	8			
		f'	67-70	4				
	F	j	71-74	4	8			
		k	75-78	4				
IV	D'	f''	79-82	4	12	12		
		g''	83-86	4				
		l	87-90	4				

④ 가창방법 제시

대합창곡 형식인 ‘평화 대합창’ 중에서 아동이 부르는 합창곡이다. 조국의 분단을 보고 안타까워하며 세계평화를 갈망하는 그의 마음이 표현된 곡임을 인식하고 부른다. 2박자의 셈여림을 강조하여 표현하고, 의성어(웃음소리)의 지속적인 표현은 스타카토 주법을 사용하면 효과적 이다.

2
29 평화의 비둘기 (mf) V

조 조 전 세 계 아 동 들

33 V

우 리 모 두 친 구 조 우 리 모 두 세 사 회 의

37 V

주 인 공 이 조 전 세 계 의

41 V

아 동 들 우 리 평 화 를 노 래 합 시

45 V <Unison> (mp) V

다 (반복) 비 둘 기야 비 둘 기

49 V

멀 리 날 아 라 - 비 둘 기야 비 둘 기

53 V (mf)

멀 리 날 아 라 - 우 리 조 선 대 원 ((소 년))

[악보 4] 평화의 비둘기 2(和平鴿)(광주문화재단, 2015, p. 13).

3

평화의 비둘기

57 모 - 두 가 주 인 공 헤이 헤이 헤이 노 동 자 아 저 씨 따라배
((우 리 의 꿈 을 펼

62 위 헤이 헤이 헤이 우 리 - 사 는 세 상
쳐))

67 행 복 하 고 - 아 름답 게 꽃 말 - 처 럼 예쁘 게

71 (mp) 라 라 라 라 라 라 라 라 라 라 라 라 라 라 라 라 라 라
(mf)

75 (f) 라 라 라 라 라 라 라 라 라 라 라 라
(ff)

79 (mp) 세 계 각 국 의 아 동 들 우 리 모 두 친 구 죠 라 라 라 라 라 라 라 라
(mf)

85 (f) <종지구> 우 리 서 로 손 잡 고 우 리 합 께 춤 추 고 노 래 해 - 요
매우 강하게 표현 (길지않게)
((불러))

[악보 5] 평화의 비둘기 3(和平鴿)(광주문화재단, 2015, p. 14).

4) 노란 피꼬리(黃鶯)

① 작곡 배경

《노란 피꼬리》는 정율성이 43세이던 1955년, 중국의 중앙악단에서 근무하던 때에 창작했다. 그는 도시를 떠나 소수민족과 함께 생활체험을 하면서 많은 곡을 창작했다. 동요 중에서 《생물표본채집》, 《별노래》, 《작은 연못》 등의 가사와 선율을 보면 관찰학습의 결과로, 자연과 동화되어 정경 묘사와 모방 기법을 사용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곡의 창작기법도 여기에 속한다.

② 시 원문, 병음 및 가사번역

黃鶯

huáng yīng

노란 피꼬리

嘎咕 嘎咕 嘎咕, 嘎咕 嘎咕 嘎咕,	까구 까구 까구, 까구 까구 까구,
gā gū gā gū gā gū , gā gū gā gū gā gū ,	
恩, 恩, 恩, 恩,	은 은 은 은
ēn , ēn , ēn , ēn ,	
河邊的楊樹上,	강가의 백양나무에서
hé biān de yáng shù shàng ,	
黃鶯在歌唱,	피꼬리는 노래를 부르고 있다
huáng yīng zài gē chàng ,	
她美麗的歌聲,	그 아름다운 노랫소리는
tā měi lì de gē shēng ,	
傳遍田野和村庄,	들과 마을에 퍼진다
chuán biàn tián yě hé cūn zhuāng ,	
她美麗的歌聲	그 아름다운 노랫소리는
tā měi lì de gē shēng	
傳遍田野和村庄。	들과 마을에 퍼진다
chuán biàn tián yě hé cūn zhuāng 。	
嘎咕 嘎咕 嘎咕, 嘎咕 嘎咕 嘎咕,	까구 까구 까구, 까구 까구 까구,
gā gū gā gū gā gū , gā gū gā gū gā gū ,	
恩, 恩, 恩, 恩,	은 은 은 은
ēn , ēn , ēn , ēn ,	
黃鶯, 黃鶯, 飛下來吧!	피꼬리, 피꼬리, 날아와라!
huáng yīng , huáng yīng , fēi xià lái ba !	

籠子里有谷粒,	둥지 안에 난알이 있고
lóng zǐ lǐ yǒu gǔ lì ,	
籠子也漂亮。	둥지는 예쁘기도 하다.
lóng zǐ yě piào liàng 。	
黃鶯, 黃鶯, 飛下來吧!	피꼬리, 피꼬리, 날아와라!
huáng yīng , huáng yīng , fēi xià lái ba !	
不! 不! 收起你的籠子吧,	아니다! 아니다! 네 둥지를 집어 치우라
bù! bù! shōu qǐ nǐ de lóng zǐ ba ,	
收起你的籠子吧!	네 둥지를 집어치우라
shōu qǐ nǐ de lóng zǐ ba !	
你的籠子雖然好,	네 둥지는 좋지만
nǐ de lóng zǐ suī rán hǎo ,	
我却喜歡天空和太陽,	나는 하늘과 태양을 좋아하고
wǒ què xǐ huān tiān kōng hé tài yáng ,	
更喜歡在樹上自由歌唱。	나무에 올라 자유롭게 노래하기를
gèng xǐ huān zài shù shàng zì yóu gē chàng 。	더 좋아한다.

③ 악곡 분석

《노란 피꼬리》는 원곡 자체가 3부 합창곡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선율과 형식이 매우 다양하고 자유로운 표현을 썼다. 뽀박과 반음 음계를 사용하여 피꼬리의 울음소리를 묘사했고, 아래 성부에 허밍 편성을 하여 숲속에서 피꼬리가 우는 정경을 그리고 있다. 그의 다른 동요작품에도 많이 나오는 의성어의 표현은 묘사적인 효과와 더불어 셈여림을 이용한 대비감 표현을 주문하고 있어서 합창의 묘미를 만끽할 수 있는 곡이다. 약간의 이념적인 요소가 보이는 가사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보다 나은 세계를 찾고자하는 당대의 열망이 표현 된 것으로 보인다. 원본에 제시된 나타냄말은 ‘활발 우미지(活潑 尤美地)’로 표시되어 있는데 ‘활발하고 여유롭게, 우아하게’로 해석 된다. 중스타카토 주법이나 앞짧은꾸밈음의 표현은 관찰력이 깊은 그가 다양한 표현 기법을 적절하게 활용한 재치를 보여주고 있다. 가사의 내용에 따른 이음표의 강조와 단호함의 표현 또한 경이롭고, 세 번 나오는 두 마디씩의 온쉼표는 앞마디 피꼬리 울음소리를 귀 기울여 듣는 모습을 하거나 메아리 소리로 표현할 수 있으며, 울동을 동반하여 표현하기 좋은 곡이다.

<Table 4> Song form

Form			Measure	Fit Measures			key	Metre
I	A	전주	1-2	2	10	38	F	2/4
		a	3-6	4				
		a	7-10	4				
	B	b	11-14	4	20			
		c	15-18	4				
		d	19-22	4				
		c	26-26	4				
		e	27-30	4				
	A	a	31-34	4	8			
		a	35-38	4				
II	D	f	39-42	4	8	32		
		g	43-46	4				
	E	f	47-50	4	8			
		h	51-56	6				
	F	i	57-60	4	8			
		j	61-64	4				
	G	k	65-68	4	8			
		l	69-72	4				

④ 가창방법 제시

‘노란 피꼬리’의 가사에서 볼 수 있듯이 의성어(피꼬리 소리) 표현과 허밍, 운쉽 표 부분의 메아리 표현, 중스타카토 등의 악상기호를 지켜 표현하도록 한다. 제자리표가 붙은 음의 음정을 주의하고 크게 두도막으로 나뉜 전반부와 후반부를 분위기가 다르게 대조적으로 표현 한다. 음표에 따른 가사붙임이 자연스럽게 되도록 가사를 수정하여 제시했다.

1. 형식 : 2개의 큰 악구, 7도막 형식, 자유롭고 다양한 형식구사
2. 배경 : 1955년, 중앙악단 근무시절, 아동관찰학습
3. 분위기 : 활발하고 우아하게, 자연묘사
4. 중요한 주법 : ① 의성어(피울)의 스타카토 표현
② 온침표 마디의 귀 기울여 듣는 표현
③ 허밍 코러스 부분의 효과적인 표현

노란 피꼬리

(3부 합창과 솔로)

管 樺 작사
(관 화)

9
16
23
31

피 울 피 울 피 울
강가 백 양 나무 아래 노래 부르네
((백양 나무 아래서 노래를))
청아한 소리는 마을에 퍼진다
((온))
그 청아한 소리들과 마을에 퍼진다
피 울 피 울 피 울
((귀 기울여 듣는, 메아리))
피 울 피 울 피 울
((귀 기울여 듣는, 메아리))
피 울 피 울 피 울
((사라져 가듯 종지))

[악보 6] 노란 피꼬리 1(黃鶯)(광주문화재단, 2015, p. 18).

2 (분위기 바뀌서 쾌활하게) 노란 피꼬리

39 (mf) 중 스타카토 표현

44 짧게 (V) 짧게 중 스타카토 표현

49 (분위기 바뀌서 단호하게) 짧은 꾸밈음, 음정주의 (V)(f) (V)(mp)

54 짧게 (mf) 짧게 (f)

59 (V) (중)

64 (ff) (V) 감탄사로 바꾸기 (아, V 아!!)

69 떨치듯 화려하게 (-) (-) (-) 반복(마디3으로)

피 끌 피 끌 날 아 오 르 네 어 여 뿐

둥 지 에 알 을 낳 는 다 피 끌 피 끌

날 아 오 르 네 아냐! 아냐! 둥 지 집 어

치 우 라 둥 지 집 에 치 우 라 너 의 둥 지

중 지 - 만 나 는 하 늘 과 태 양 이 ((중

중 아, 나 무 에 올 라

자 유 를 노 래 해

[악보 7] 노란 피꼬리 2(黃鶯)(광주문화재단, 2015, p. 19).

5) 작은 연못(小池塘)

① 작곡 배경

《작은 연못》은 정율성이 43세이던 1955년에 창작했다. 다양한 기법과 형식을 사용한 그의 창작특징이 잘 나타난 곡인데, 전주와 간주에 변박자를 사용한다거나 짧은꾸밈음을 사용한 감탄사 표현, 중스타카토를 활용한 동작 강조 표현, 집중력 있는 관찰로 정경을 묘사하는 기법 등이다. 그의 이러한 기법은 섬북(陝北)지방 등의 민요에서 영감을 얻은바가 크다(광주문화재단, 2014, p. 79).

② 시 원문, 병음 및 가사번역

小池塘

xiǎo chí táng

我是一个小池塘呀，
wǒ shì yí gè xiǎo chí táng ya ,
池水藍汪汪。
chí shuǐ lán wāng wāng 。
每天只有白云向我問好，
měi tiān zhī yǒu bái yún xiàng wǒ wèn hǎo ,
風兒跟我玩笑，
fēng er gēn wǒ wán xiào ,
小野兔在我身旁吃草。
xiǎo yě tù zài wǒ shēn páng chī cǎo 。
忽然有一天響起了小鼓和小号，
hū rán yǒu yí tiān xiǎng qǐ le xiǎo gǔ hé xiǎo hào ,
呵！少先隊員們來到了，
hē ! shào xiān duì yuán men lái dào le ,
男孩子拿着大鐵鏟，
nán hái zi ná zhe dà tiě chǎn ,
女孩子扛着樹苗。
nǚ hái zi káng zhe shù miáo 。
樹苗種在我身旁呀，
shù miáo zhǒng zài wǒ shēn páng ya ,
汗珠兒掉進小池塘呀。
hàn zhū er diào jìn xiǎo chí táng ya 。
少先隊員們這樣講：
shào xiān duì yuán men zhè yàng jiǎng :
小池塘，小池塘，
xiǎo chí táng , xiǎo chí táng ,

작은 연못

나는 작은 연못이고
연못의 물은 맑고 깨끗하다.
날마다 흰 구름이 나에게 인사하고
바람이 나와 같이 놀고
산토끼는 내 옆에 풀을 뜯고
갑자기 어느 날에 소고와 트럼펫 소리가
울려 퍼졌다.
하! 소년대원들이 왔다
소년들이 큰 삽을 들고
소녀들이 묘목을 든다.
묘목을 내 옆에 심고
땀은 연못에 떨어졌다.
소년대원들이 이렇게 말했다:
작은 연못, 작은 연못,

我們要把你打扮得跟春姑娘一樣。 우리는 너를 아름다운 봄처럼 꾸미겠다.
 wǒ men yào bǎ nǐ dǎ bàn dé gēn chūn gū niáng yī yàng 。
 小池塘，小池塘， 작은 연못, 작은 연못,
 xiǎo chí táng , xiǎo chí táng ,
 我們要把你打扮得跟春姑娘一樣。 우리는 너를 아름다운 봄처럼 꾸미겠다.
 wǒ men yào bǎ nǐ dǎ bàn dé gēn chūn gū niang yī yàng 。

③ 악곡 분석

《작은 연못》은 6/8박자의 차분한 율동표현과 2/4박자의 경쾌한 행진곡풍을 결합시킨 묘사적 표현이 대조적이고 돋보인다. 가사는 연못가에서 아동들이 나무를 심고 가꾸는 정경을 노래한 것으로 아동의 움직임을 중스타카토로 표현 했다. 원본에 제시된 나타냄말 ‘초쾌 활발지(稍快 活泼地)’는 ‘빠르고 활기차게’로 해석된다. 원본 중심의 가사 변경이 필요한 곡이다.

<Table 5> Song form

Form		Measure	Fit Measures		key	Metre
A	전주 a	1-5	5	25	6/8	G
	b	6-9	4			
	c	10-13	4			
	d	14-16	4			
	간주 a	17-21	4			
B	e	22-25	4	20	2/4	
	f	26-29	4			
	g	30-33	4			
	h	34-37	4			
	간주i	38-41	4			
C	j	42-47	6	19	6/8	
	k	48-51	4			
	l	52-55	4			
	m	56-60	5			

④ 가창방법 제시

‘작은 연못’은 가사의 내용에 따른 동작과 전주, 간주부분의 율동을 미리 정하고 시작한다. 원본 중심의 음표로 변경하여 제시한 부분을 유의하도록 한다.

작은 연못

1. 형식 : 큰 3악구의 매우 다양하고 자유로운 형식
2. 배경 : 1955년, 아동들의 활동을 관찰한 표현
3. 분위기 : 빠르고 활발하게, 중지, 간주 부분은 어깨춤
4. 중요한 주법 : ① 6/8박자, 2/4박자의 리듬 표현
② 자연과 아동의 모습을 묘사하듯 표현
③ 전주, 간주 부분은 정경을 표현하고 변박자에 주의

徐 良 작사
(서 양)

(J.=65) 충분하게 (정경묘사)

나 - 는 작 은 연 - 못 이 야 깊 - 고 푸 - 른

물 안 녕 하 고 물 는 구 - 름 바 람 나 와

원본중심 ((물 는 구 - 름 에))

함 께 해 아 기 토 끼 내 옆 에 서 풀 을 뜯 네 -

원본중심 ((내 곁 에))

간주(아동활동 묘사)

충분하게 변박자 (J.=100) (mf) (뒹박표현주의)

작 - 은 북 - 과 나 팔 을

25 짧게

울 리 며 아 작 은 아 이 들 연 못 에

[악보 8] 작은 연못 1(小池塘)(광주문화재단, 2015, p. 22).

2

작은연못

29 왔 네 한 아 이 작 은 삼 들

33 고 여 자 아 이 나 무 들 었 -

37 *(f)* 중스타카토 표현 *rit*
(호미질 묘사 표현하듯)

41 변박자 *(mp)* ♩=65 차분하게

45 작 - 은 나 무 아 이 들 이 노 래 해 작 은 연 못

49 가사 음절 맞게 호흡 *X* *V*

53 꾸 며 줄 게 작 은 연 못 작 은 연 못 봄 에 어 여 뿐

57 가사 음절 맞게 호흡 *X* *V* *rit* (길게)

나 비 처 럼 너 - 를 꾸 밀 게

[악보 9] 작은 연못 2(小池塘)(광주문화재단, 2015, p. 23).

6) 가마우지(鷓鴣)

① 작곡 배경

《가마우지》는 정율성이 45세이던 1957년에 창작했다. 이 시기에는 오페라 형식의 극음악 <망부운(望夫云)>을 창작한 시기이기도 하다. 조국의 광주에서 유년 시절부터 물고기 잡이를 매우 잘 하고 좋아했던(정설송, 1992, ①, p. 26) 그가 중국에서 가마우지를 이용하여 물고기를 잡는 모습을 관찰하여 창작한 작품으로, 고용주에게 혹사만 당하고 배부르지 못한 일꾼들을 가마우지에 비유한 가사에 묘사적인 선율로 창작했다. 그의 많은 성악곡에서 볼 수 있는 대자연의 모습과 당대의 생활상을 표현한 대표적인 동요이다.

② 시 원문, 병음 및 가사번역

鷓鴣 lú cí

가마우지

一只鷓鴣下到水里把魚捉,	가마우지 한 마리가 물에서 물고기를 잡는다.
yī zhī lú cí xià dào shuǐ lǐ bǎ yú zhuō ,	
平靜的水面起漩渦;	잔잔한 물위에 소용돌이가 친다.
píng jìng de shuǐ miàn qǐ xuàn wō ;	
兩只鷓鴣下到水里把魚捉,	가마우지 두 마리가 물에서 물고기를 잡는다.
liǎng zhī lú cí xià dào shuǐ lǐ bǎ yú zhuō ,	
水上的倒影被冲破。	물 위에 비친 그림자가 흩어졌다.
shuǐ shàng de dǎo yǐng bèi chōng pò 。	
漁人划着他的漁排緊緊跟在后面,	어부가 뗏목을 저어 바짝 쫓무니를
yú rén huá zhe tā de yú pái jǐn jǐn gēn zài hòu miàn ,	따라 다닌다
他已撒下一面大网,	그는 그물을 퍼서
tā yǐ chè xià yī miàn dà wǎng ,	
不讓魚兒逃脫。	물고기가 도망치지 못하게 한다.
bú ràng yú er táo tuō 。	
三只鷓鴣下到水里把魚捉,	가마우지 세 마리가 물에서 물고기를 잡는다.
sān zhī lú cí xià dào shuǐ lǐ bǎ yú zhuō ,	
魚兒向着深潭里躲;	물고기들이 깊은 못으로 숨고;
yú er xiàng zhe shēn tán lǐ duǒ ;	
四只鷓鴣下到水里把魚捉,	가마우지 네 마리가 물에서 물고기를 잡는다.
sì zhī lú cí xià dào shuǐ lǐ bǎ yú zhuō ,	

几條大魚同時被抓着。	물고기 여러 마리가 함께 잡혔다.
jǐ tiáo dà yú tóng shí bèi zhuā zhao 。	
鷓鴣剛剛咬住一條大鯉魚，	가마우지가 잉어 한 마리를 몰자마자
lú cí gāng gāng yǎo zhù yī tiáo dà lǐ yú ,	
漁人就拖它的腳；	어부는 가마우지의 다리를 잡아챌다;
yú rén jiù tuō tā de jiǎo ；	
鷓鴣抓住魚兒自己吃不着，	가마우지가 잉어를 잡았지만 먹지 못한다,
lú cí zhuā zhù yú er zì jǐ chī bú zhao ,	
又去下水把魚捉。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물에 간다.
yòu qù xià shuǐ bǎ yú zhuō 。	
水里魚兒大大小小全都進了網羅，	물에 크고 작은 물고기들 다 그물에 걸린다.
shuǐ lǐ yú er dà dà xiǎo xiǎo quán dōu jìn le wǎng luó	
水上漁人划着漁排，	물위에서 어부가 뗏목을 짓고
shuǐ shàng yú rén huá zhe yú pái ,	
口里唱着漁歌。	뗏노래를 부른다.
kǒu lǐ chàng zhe yú gē 。	
鷓鴣回到漁排上蹲着，	가마우지는 뗏목으로 돌아와서
lú cí huí dào yú pái shàng dūn zhe ,	웅크리고 앉아있고
吃着小魚不快活；	작은 물고기를 먹지만 즐겁지 않다
chī zhe xiǎo yú bú kuài huó ；	
它們天天都想吃下最大的魚，	그들은 날마다 제일 큰 물고기를 먹고
tā men tiān tiān dōu xiǎng chī xià zuì dà de yú ,	싫어 하고
可是大魚一條也吃不着！	그러나 큰 물고기 한 마리도 먹지 못 한다.
kě shì dà yú yī tiáo yě chī bú zhāo !	

③ 악곡 분석

《가마우지》는 가마우지를 이용한 물고기 잡는 장면이 저절로 떠오르는 묘사적인 동요이다. 특히 강물의 흐름과 가마우지가 자맥질하는 모습이 표현된 반주부는 예민한 관찰력과 묘사력이 매우 뛰어남을 볼 수 있다. 더불어 그의 작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가사의 이념적인 면이 이곡에 매우 뚜렷하게 나타나 있다. 율성이 어린 시절 조국에서 일제의 착취로 인한 어려움을 겪었으며, 당대의 중국이 혁명분위기에 휩싸이고 분배문제로 갈등이 심한 시절이었으므로 이 곡이 탄생되었다고 볼 수 있다. 원본에 나타냄말이 ‘활발 유취(活潑 有趣)’로 표시되어 있는데 ‘활발하게 뜻을 생각하며’로 해석할 수 있으며, 중스타카토를 사용하여 강조

와 유머러스한 표현을 한 것은 동요나 가곡의 기법에서 매우 독창적인 표현이다. 작은악절이 규격화된 큰 세도막 형식을 사용하였다. 합창으로 부를 때는 가사의 내용을 이용하여 묘사적인 율동으로 표현할 수 있는 곡이며, 이념적인 가사 보다는 유머러스한 표현이 두드러지는 곡이다.

<Table 6> Song form

Form		Measure	Fit Measures		key	Metre		
A	a	1-4	4	16	F	2/4		
	b	5-8	4					
	a'	9-12	4					
	c	13-16	4					
B	d	17-20	4	16			F	2/4
	e	21-24	4					
	d	25-28	4					
	c'	29-32	4					
C	a	33-36	4	16	F	2/4		
	b	37-40	4					
	e	41-44	4					
	f	45-48	4					

④ 가창방법 제시

‘가마우지’의 노래는 제목과 가사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한 설명이 필요하다. 작곡자의 의도가 명백한 중스타카토를 이용한 흥미 있는 표현과 점점 세게, 점점 여리게 등의 표현을 극대화 하여 노래하고, 그의 독창적인 기법으로 표현된 중지음은 반드시 짧게 한다.

1. 형식 : 작은 악절이 반복되는 큰 3도막 형식
2. 배경 : 1957년, 중국 전통 고기잡이 관찰,
고용주와 노동자의 비유적 표현이기도 함
3. 분위기 : 활발하게, 뜻을 생각하며
4. 중요한 주법 : ① 정경의 묘사적 표현
② 중스타카토와 프레이즈 연결주의
③ 가사의 뜻을 이해하고 절제된 표현

가마우지

放 平 작사
(방 평)

(mf) (중스타카토 표현) (중스타카토) (중스타카토) (f)Cresc (mf) (음정주의) (v) (f) (금지 앞게)

물 속에 들어가는 가마우지 잔잔한 호
 커다란 잉어가 마우지 입을 줄을 당기
 수위에 물속에 헤엄치는 가마우지 파도
 는 어부 물고기는 어부 그 물속에 불쌍
 를 일렁이네 빨리노를 짓는 어부
 한가마우지 모든 물고기들
 가마우지 뒤따르네 그물치는
 그물안에 들어가네 노를 짓는
 어부 물고기 그물간히네 물고기잡는
 어부 흥겨워 노래부르네 배위에 돌아온
 가마우지 물고기 연못에 숨네 물고기
 가마우지 속심 많은가마우지 큰물고기
 잡은가마우지 입안에는 큰물고기있네
 이기원하네 큰물고기 어부 그물속에
 ((먹기를원하지만))

[악보 10] 가마우지(鷓鴣)(광주문화재단, 2015, p. 26).

Ⅲ. 결론 및 제언

이름 있는 작곡가들 중에는 동요를 창작한 경우가 매우 드물다. 정율성의 음악 작품들은 매우 다양한 장르를 갖추었는데, 그 중에서도 그의 인생의 중후반기라고 할 수 있는 1952년에 창작한 동요 <평화의 비둘기>를 시작으로 그가 서거한 1976년까지 40여곡의 동요를 작곡한 것은 그가 특별히 어린이들을 사랑하고 순수한 감정을 소유한 예술가이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그의 동요는 순수 동요, 계몽 동요, 군가 풍의 동요로 나눌 수 있는데, 순수동요는 집중력 있는 관찰력과 조국에서의 추억, 그의 정서감이 표현된 작품들이고, 계몽 동요는 혁명에 의한 많은 변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어린이들의 의식과 생활 환경의 전환을 계몽하는 동요임을 알 수 있으며, 작품 초기에는 군가가 대부분이었지만 6.25 동란이후 제목과 가사에서 ‘세계’, ‘평화’ 라는 단어가 많이 포함된 것은 그가 조국의 분단을 안타깝게 여기고 하나 된 조국을 열망하였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그의 생애를 살펴본 결과, 민족애국 정신이 투철한 집안에서 자랐으며 항일운동을 위해 1933년 중국에 건너간 이후 온갖 고난을 겪으면서도 끊임없는 학구열을 가지고 음악을 공부했고, 창작의 소재를 찾아가는 현장 중심의 체험과 불꽃같은 창작의 혼을 불사른 결과 불후의 명곡을 남겼으며, 62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날 때 까지 그를 회고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는 순수한 영혼과 의지와 기개가 출중하며 성실과 근면함의 아름다운 생활인으로 기억되고 있다.

1976년 그가 세상을 떠난 지 40여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과 중국은 외교와 경제, 문화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동반자 관계의 시대를 가고 있으며, 특히 그의 정신세계와 작품을 공유하며 향수하고 있다. 그의 출생지이자 고향인 광주광역시에서는 2005년부터 그의 작품을 연구하고 공연하며 그를 기념하고 있는데, 특히 주옥같은 동요는 공연 때 마다 많이 불려지고 [정율성동요합창경연대회] 행사를 통해 이미 많은 어린이들의 가슴에 그의 평화와 행복의 열망이 자리 잡아 가고 있다. 그동안 중국어로 된 가사를 의역하여 부르는 것 외에는 구체적으로 연구된 자료가 매우 부족한 형편이었는데, 여섯 곡의 동요를 발췌하여 분석과 가창방법 제시를 위한 작업을 하게 된 필자는 본 연구를 통해 창작 배경, 특징, 과정을 보다 깊이 알 수 있었고, 아동을 사랑하는 순수열정과 깊은 정서감이 그의 작품에 깊이 있게 나타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주옥같은 그의 동요를 가창할 때 제기되는 몇 가지의 문제점 해결과 효과적인 가창방법을 제시 할 수 있었다.

첫째, 그동안 번역하여 부른 동요가사는 정확한 이해가 부족했다. 특히 중국어가사의 원뜻이 전달되지 못한 경우가 많았는데 이 점을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자는 중국본토 출신인 서월화 님의 도움을 받아 선명한 우리말로 해석하여 기존에 사용해 왔던 우리말 가사의 몇 부분을 수정하여 제시했다.

둘째, 그의 동요 중에는 독특한 이국적인 느낌의 곡이 많이 있는데, 그 독특함의 주된 이유는 중국 소수 민족의 민간 음조가 사용되었기 때문임을 알게 되었고, 원곡의 선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사 음절 붙임이 매우 중요함을 깨닫게 되어 우리말 악보에 원본의 선율과 원 가사 뜻을 존중하여 기존에 제시된 악보 중 교정해야 하는 부분을 표시했다.

셋째, 그의 동요 특징 중 몇 가지는 도약 선율이 자주 사용되고, 선율의 고공성과 클라이막스의 반복, 재상승 등의 부분이 많기 때문에 노래하는 아동이 선율과 프레이즈 처리를 할 때에 절제적인 호흡의 사용과 체력 안배가 필요함을 인식하여, 가창제시 악보에 악상의 추가 표시와 호흡 처리 주의부분, 프레이즈 연결부분에 대한 주의 부분을 빠짐없이 표시했고, 가사의 내용이 사물의 움직임과 의성이 표현이 있는 경우에는 작곡자의 의도가 분명하게 나타난 표현기호를 놓치지 않도록 강조해서 표시했다.

넷째, 동요의 여러 가지 배경과 창작의 경과가 특별하여 그 배경과 창작과정을 이해 할 수 있어야만 작품이 가지고 있는 정서감을 충분히 표현 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곡의 구체적인 분석과 작품의 창작배경에 대한 내용을 악보에 서술하여 도움이 되게 했다.

다섯째, 그의 동요의 세계화, 일반 대중화의 걸림돌이 되었던 그의 사상과 행적에 대한 평가를 안타깝게 여겨 왔던 연구자는 그의 행적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많은 자료를 참고하고, 사실 확인을 거쳐 그의 참된 삶과 창작 정신에 대한 재평가를 내리고자 하였는데, 그의 동요에서 아동의 행복을 위한 순수 열정을 읽을 수 있었고, 그는 국제주의자, 평화주의자였으며, 자신의 조국인 대한민국의 분단을 안타깝게 여기고 통일을 열망했던 애국자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정율성의 동요에 대한 깊은 이해와 더불어 효과적인 가창방법을 제시 할 수 있었고, 그의 창작 열정과 인간애, 예술인으로서의 그의 모범된 삶을 닮고자 하는 가슴을 갖게 되었다. 앞으로 본 논문이 그의 동요곡을 연주하는 아동들에게 좋은 참고 자료가 되고, 그의 동요가 세계화 되며, 한국의 모든 국민들에게 그의 동요가 많이 불려지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단행본>

- 광주문화재단 (2007). **정율성예술가곡**. 광주: 광주문화재단.
- 광주문화재단 (2008). **정율성작품을 주제로 한 7인의 실내악 작품**. 광주: 광주문화재단.
- 광주문화재단 (2011). **정율성예술가곡**. 광주: 광주문화재단.
- 광주문화재단 (2015). **탄신100주년기념 鄭律成歌曲集**. 광주: 광주문화재단. pp. 8-26
- 이종한 (2006). **정율성평전 음악이 나의 무기이다**. 서울: 지식산업사. p. 49, p. 47, p. 95, p.274, p. 275
- 정설송 (1992). **작곡가 정율성 ① 그의 삶**. 서울: 형상사. p. 228, pp. 40-402, p. 27, p. 19, p. 52, p. 57, p. 87, p. 126, p.99, p. 230, p. 26
- 정설송 (1992). **작곡가 정율성 ② 그의 음악**. 서울: 형상사. p. 79, p. 229, p. 54, p. 160, p. 34, p. 37
- 편찬조 (1996). **조선족 역사**. 서울: 연변인민출판사.
- 한현묵 (2006). **중국문화기행**. 광주: 심미안출판사. p. 159
- 憑光玉 (1999). 20世紀中國音樂思考. 北京: 中國文聯出版社.
- 孫興民 (1980). 中國音樂家辭典. 北京: 人民音樂出版社.
- 汪岷和 (1994). 中國近現代音樂史. 北京: 人民音樂出版社.
- 丁雪松 (1982). 中國人民解放軍歌 作曲家 鄭律成 生涯. 沈梁: 遼寧人民出版社.
- 丁雪松 (1982). 中國人民解放軍歌 作曲家 鄭律成 音樂. 沈梁: 遼寧人民出版社.
- 丁雪松 (1983). 作曲家鄭律成. 沈梁: 遼寧人民出版社.
- 丁雪松 (1984). 鄭律成歌曲選. 沈梁: 遼寧人民出版社. pp. 63-408
- 周 暢 (2003). 中國現代音樂家作品. 北京: 人民音樂出版社.
- Robert lachmann (1992). **동양의 음악**. 서울: 삼호출판사. pp. 58-60

<학술집>

- 광주광역시 (2006). 정율성과 기독교. 광주정율성국제음악제조직위원회.
- 광주광역시 (2008). 항일음악전사 정율성. 광주정율성기념사업회. pp. 56-62, pp. 63-64
- 광주문화재단 (2012). 정율성 국제학술컨퍼런스. 광주문화재단. p. 72, p. 46
- 광주문화재단 (2014). 정율성 선생 탄신 100주년 기념 국제학술집. 광주문화재단. p. 86, p. 94, pp. 96-106, p. 89, pp. 86-87, p. 79
- 전남일보사 (2011). 항일음악전사 정율성 국제학술토론회. 전남일보사. p. 101

<논문>

- 김성준 (1997). 鄭律成의 음악활동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명지대대학원.
- 김성준 (2006). 작곡가 정율성 출생지에 대한 고증. **한국음악사학회**.
- 김주용 (2011). 鄭律成의 생애와 항일민족운동. **동국사학**.
- 박은옥 (2011). 중국 사범대학교에서의 전통음악교육에 대한 현황조사. **음악교육연구**
- 방춘월, 조원임 (2004). 정율성, 정추풍의 대표작에 나타나는 중국 예술가곡의 음악적 특징. 석사학위논문, 서울대 대학원.
- 배경대 (2013). 항일민족음악가 정율성의 성악작품분석 <풍년> <아름다운 농장>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중앙대대학원.
- 송서평 (2009). 정율성의 음악창작 탐구. **남북문화예술연구**.
- 이미화 (2009). 鄭律成의 성악작품에 관한 연구 <연안송> <연수요> <팔로군행진곡>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건국대 대학원.
- 이성주 (2004). 중국근대 예술가곡의 變遷史. 석사학위논문, 서울대대학원.
- 양희석 (2008). 정율성의 오페라 <望夫雲>의 내적의미. **중국인문학회**. pp. 351-367
- 정유하 (2006). 정율성의 음악연구 <연안송>과 <중국인민해방군군가>를 중심으로. **전남대학교예술연구소**.

<사전>

- 음악대사전 (1987). 서울: 세광음악출판사.
- 음악인명사전 (1987). 서울: 세광음악출판사.
- 음악용어사전 (1994). 서울: 세광음악출판사.

<인터넷자료>

- 로신예술학원: http://korean3040.com/bbs/board.php?bo_table=0801&wr_id=228
2015.11. 05
- 섬북공학: http://korean3040.com/bbs/board.php?bo_table=0801&wr_id=228
2015.11.05
- 한국브리테니커백과사전, [Marco Polo Bridge incident], [Ch'en I, 陳毅] 2015.11.05
[T'aohuayanchi, 桃花源記] 2015.11.05

<악보>

- 탄신100주년기념 鄭律成歌曲集 (2015). 광주: 광주문화재단. pp. 8-26
- 鄭律成歌曲選 (1984). 沈梁: 遼寧人民出版社. p. 4, pp. 63-408

ABSTRACT

**A Study on Children's Songs by
Jeong Yul-Seong
- Focused on Technic of Singing -**

Nam-Kyoung Kim

Jeong Yul-Seong (1914-1976) was born Gwang-ju in Republic of Korea as one of China's three major musician. He spent his early years in South Korea. Since 1933, he went to China for anti-Japanese movement, he was known as the 1.3 billion Chinese music godfather for evolution and lyrical music created works of more than 360 songs.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develop a teaching and learning method for children's songs composed by Jeong Yul-Seong. To know Jeong Yul-Seong, First I had to research his birth and life of childhood, and looked out the creative features based on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the time was the work activities. Second, to organize his masterpiece. Third, to present the way of singing his masterpiece 6, play singing the original sound expressed directly by the Pinyin(拼音) with the original song and the letter directly to the Korean music, was presented to compose background, atmosphere, important state, modifying the lyrics and singing accent and methods.

Key words : Jeong Yul-Seong, children song, compose background, technic of singing

투고일: 2016년 2월 29일, 심사(수정): 4월 20일(4월 25일), 게재확정일: 5월 13일